

Global Bio Forum 2019

Challenge Bio Further Bio

2019.11.26 (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최 : 뉴스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lobal Bio Forum

2 0 1 9

INVITATION



‘글로벌 바이오포럼 2019’ 는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바이오 업계는 글로벌 신약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임상시험, 상업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포럼 2019에서는 세계 바이오클러스터에서 비롯된 신약개발 성공 사례와 해외기업들의
연구개발 전략, 앞으로 변할 국내 바이오 정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 참여기업들 간의 연구개발(R&D) 제휴와 사업화 등 파트너링을 지원합니다.

2019 아젠다

‘Global Bio Forum 2019’ Agenda

K바이오의 도약, 클러스터가 이끈다



바이오클러스터를 키우자

해외 바이오클러스터의 연구개발(R&D) 협력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본다.

다국적 제약사에 듣는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사의 기술 수입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라이선싱하려는 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첨단바이오법 시행, 무엇이 바뀌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자원에 관한 법률안 시행과 관련해 앞으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정책 방향을 짚어본다.

행사개요 (1)

행사명	글로벌 바이오 포럼 (Global Bio Forum 2019)		
행사주제	K바이오의 도약, 클러스터가 이끈다		
행사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 09:00 ~ 16:00	행사장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예상 참여인원	약 300여명		
주최			

참가대상

바이오 기업



해외업체



대학·연구기관



정부·유관기관



행사구성

환영행사

교류·홍보행사

주제발표

기업소개

기업 홍보 부스

행사개요 (2)

환영행사

연사 영접, 환영 VIP 티타임, 기념촬영

- ☑ **주요내용 :** 환영의 분위기에서 주요 VIP와 국내·외 초청 인사 환담
- ☑ **참석대상 :** 주최·주관관계자, 연사 등 30여명

오픈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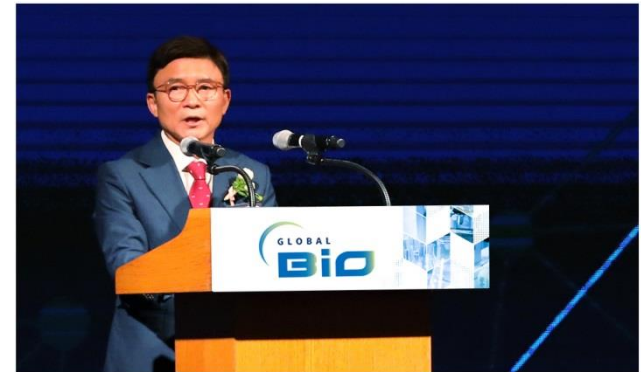
개회식, 환영사, 축사

- ☑ **주요내용 :** 주최자 환영사, 주요 VIP 축사
- ☑ **참석대상 :** 바이오 기업, 학·연구계 전문가, 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 등

주제발표

세션발표 및 오찬

- ☑ **주요내용 :** 국내 발표자 총 5 개 주제로 발표 예정
- ☑ **참석대상 :** 바이오 기업, 학·연구계 전문가, 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 300 여명



※ 위 이미지는 행사 이미지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입니다.

부스안내 (안)

부스 안내

부대행사 개최를 통한 업계 관계자 간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마케팅 및 시너지효과 기대 !

☑ **주요내용** :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쇼케이스와 체험관, 정보를 제시하는 기업 홍보관 등

☑ **전시품목** :



기업 홍보관



제약·바이오 관련 R&D



스타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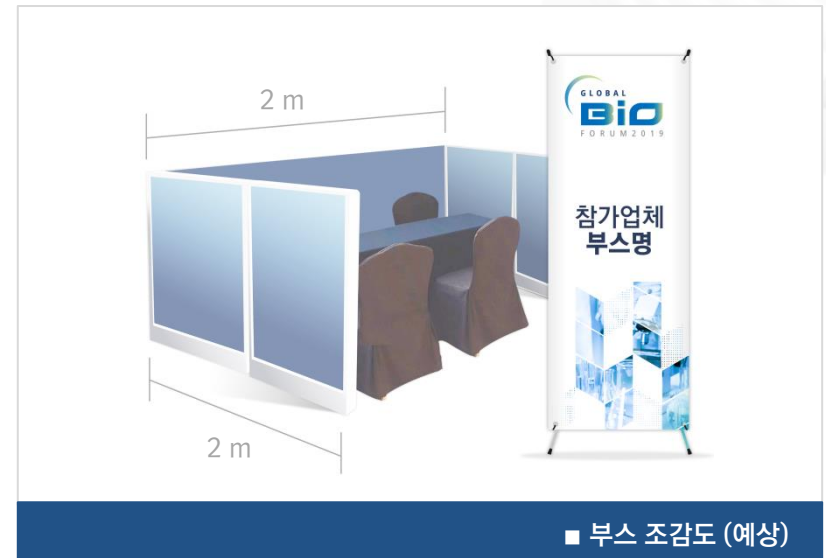


기술 및 솔루션

☑ **상담부스** :

부스 참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기 위해 부스를 별도로 구매가능
지원 품목	상담부스 : 2m * 2m 사각테이블 : 1.5m * 60Cm (1개) + 의자 4개 X배너 1개, 멀티탭 1개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 별도 문의



■ 부스 조감도 (예상)

프로그램

gbf.news1.kr

시 간	내 용	
08:30~09:00	등록	
09:00~09:30	오프닝	
09:30~10:10	Session1 보스턴에서 배운다.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요인	데이비드 플로레스 (BioCentury 회장)
10:10~10:50	Session2 머크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과 유럽 바이오클러스터	마이클 첸 (독일 Merck 이노베이션 중국 총괄)
10:50~11:30	Session3 J&J LABS의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	샤론 찬 (존슨앤존슨랩 중국총괄)
11:30~12:30	점심시간	
12:30~13:10	Session4 바이오클러스터를 키우자 첨단바이오법 시행, 무엇이 바뀌나?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13:10~13:50	Session5 긴 호흡 바이오산업, 위기를 건너는 지혜	김태억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본부장)
13:50~16:00	국내기업 소개 발표	
폐 막		

※ 위 일정은 주최 측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사소개 (1)

보스턴에서 배운다. 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요인



데이비드 플로레스 / 美 바이오벤처 회장

- 미국 바이오전문지 바이오벤처 회장
- 노스웨스턴대학 혁신 및 신벤처 사무소(INVO) 자문위원
- 케크대학원 응용생명과학연구소 자문위원
-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운영위원
- 카렌 번스타인과 바이오벤처 공동창업
- 스탠포드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졸업
- UC 버클리대 졸업

머크의 혁신신약 파이프라인과 유럽 바이오클러스터



마이클 첸 / 독일 머크 (Merck) 이노베이션 중국 총괄

- Merck 이노베이션 중국 총괄
- 중국 우시 앵텍/ 캠퍼트너 비즈니스 개발 및 투자
- 영국 스피로젠/ 메드이문 연구 프로젝트
-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생화학 박사 졸업
- 영국 노팅엄대학교 암면역 요법 석사 졸업
- 영국 에식스대학교 세포 및 분자생물학 학사 졸업

연사소개 (2)

J&J LABS의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



샤론 찬 / 존슨앤존슨랩 중국총괄

- 이사, Right 2 Thrive, INC.(뉴욕)
- 아시아 총괄, Aeras(베이징)
- 중국지역 사업개발 총괄, Baxter Healthcare
- 공공보건 석사(MPH), 존스홉킨스대학
- MBA, IE 비즈니스 스쿨(스페인)

첨단바이오법 시행, 앞으로 달라지는 바이오 정책은?



이동희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 우석대 약학과 학·석·박사 졸업

연사소개 (2)

긴 호흡 바이오산업, 위기를 건너는 지혜



김태억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본부장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본부장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연구개발본부장
- 케이투비 대표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선임PM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리즈대학 기술경제학 박사
- 맨체스터대학 경제학 석사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뉴스 통신사입니다

영향력

댓글 많은 뉴스
Top2
(2018)

기사 통합 열독률
3위
(2018)

국내 포털 內 많이 본 뉴스
언론사 2위
(2017)

매체합산
여론 영향력 점유율
Top10

제휴

외신제휴



국내유일 신문·인터넷·모바일
라이선스 보유



프랑스 최대 통신사와
외신제휴



매년 공동으로 새해의 글로벌
어젠다를 설정하는 매거진 출간

- News1 사이트 [웹어워드 미디어·정보서비스부문 최우수상]
앱 [스마트앱 방송·뉴스분야 대상] 2017 - (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Google 애드센스 우수 매체 및 유망 언론사로 선정 2016.11.21
- Google Youtube Premium Partner 선정 2016.11

트래픽

하루 2,000개
기사·사진 출고

PV 130만
UV 80만

주요 서비스

- 24시간 365일 Real-Time 뉴스·사진·영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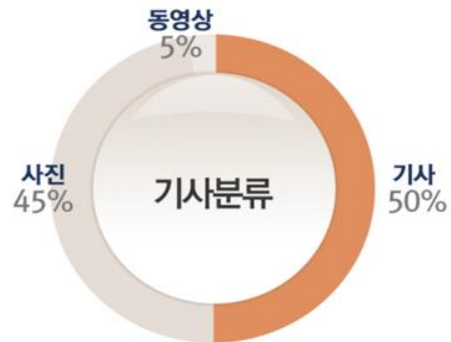
뉴스1 소개

설립일 2011년 4월 7일 **기자현황** 본사 취재/사진기자 - 200명 | 전국 11개 지역 취재본부 기자 - 120명

방대한 뉴스 생산량

일 평균 2000건 이상의 기사 제공

분야별 뉴스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뉴스1

국내 11개 지역 취재본부 · 지사 전국망



반드시 온라인 사전등록 하세요

등록사이트 **gbf.news1.kr**

등록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 사전 등록은 참가비가 결제되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신청문의 Bio포럼 담당자 02)397-7022

이메일 bio@news1.kr

참가비 1인당 **100만원** (VAT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 / 카드결제 가능